

Glenn Reynolds, *An Army of David*, 2006.

곽미경 역, 『다윗의 군대, 세상을 정복하다: 인터넷 시대의 유쾌한 반란, 세상을 바꾸는 '개인의 힘'』. 베이스캠프미디어, 2008.

1. 개인의 힘

- 개인의 역량 증대 (empowerment): 기술 (인터넷, IT, NT, Bio)이 개인의 힘을 확대시킴 (vs 관료 조직, 기성 언론기관,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수직적 조직)

- 개인의 힘의 증대는 무엇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술 활용이 저렴해지고 편리해지며 보편화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 및 전송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 (저자 자신이 이렇게 구한 장비를 이용해 음악을 작곡하고 CD를 만든다)

- 이러한 개인들의 힘이 단순히 협력을 통해 합쳐 진다기 보다는 개인들의 힘의 조직화 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수평적 지식, 수평적 소통, 수평적 정치

- 개인들의 힘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공동체의 방식으로 조직되고 행사된다. '체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공동체는 사적 공간,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과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 (재미 추구 등)가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으로 인식.

- 그러나 '체험의 공동체'는 사적 활동, 경제 활동, 사회관계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전통적인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보더스 서점의 휴게공간이 대표적 사례

2. 수평적 지식, 수평적 소통

- 새로운 지식 생산 방법과 소통이 확산되고 있다: 수평적 지식과 수평적 소통

- 수직적 지식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중심, 전문가 중심, top-down 방식, 정부와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의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지식의 형태를 가졌다. 이것은 또한 수직적 소통 구조를 가졌다. 수직적 대 조직에 의해 독점되고 활용된다. (권력, 이윤, 명예 등) CIA, 국방부, NASA, 음반회사, 언론기관, 월마트

- 수평적 지식은 "서로를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관심사나 어떤 사람과의 연관성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

. 아마추어적이고 하향적이며 개인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조직되며 이것은 수평적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 생산과 소통구조는 유연하면 탈중심적이다. 이것은 수직적 지식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크다.

. 예, 911 당시 맨하튼의 주민 대피 작전이 초기에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졌다. 선박 등 수송수단이 자발적으로 동원, 활용되었다. 4일째 되어서야 연방정부가 이 작업을 인수했다. 이때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98-99면). strangeband.com (음악 제작, 평가 사이트); 온갖 장르에 걸쳐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 좋은 음악이 걸리 나온다.

3. 다윗의 군대 (empowered된 개인의 집합체): ‘체험의 공동체’ ---> 새로운 단위 혹은 집합체인가?

- ‘체험의 공동체’:

.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공동체는 정부, 시장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됨. 예로 지역사회 공동체.

. 레이놀즈는 시장, 공공 영역, 사적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진다고 말한다. 예, 보더스 서점의 휴게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예로 개인들이 랩탑을 가지고 일도 하고 친교도 맺고 공동작업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단순히 만나는 장소,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힘을 통해 벌이, 재미, 관계가 이루어진다. 개인들은 소기업도 하고 벤처도 경영하는데 따로 사무공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고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다.

.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3장의 제목). ‘머무는 곳’은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체험은 일, 관계, 놀이, 소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시장, 사적 영역, 전통적인 공공영역 등을 포함.

. 체험의 공동체는 개인들에 의한 수평적 지식이 생산이 이루어지며, 수평적 소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 ‘체험의 공동체’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형성된다. 예로 보더스 서점의 휴게 공간에서 맺어지는 공동체 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 블로그, strangeband.com, 이베이 등

- 다른 개념화와 비교

. ‘프로슈머’와의 비교: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행위자라면 프로슈머도 기본적으로 시장행위자.

. 다중: 대중, 인민, 계급과는 다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나 not fragmented, anarchical, incoherent 하다. 생동하는 주체로서 singularities를 형성. 맑스주의적 입장

. 군중의 지혜 / open source community / 집단지성

4. 이베이 국가와 수평정치

-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율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기능. 소기업, 자영업들에게 편리하고 혜택이 가는 제도 운영

- 이베이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와 퇴직금 방식이 되도록 제도를 간소화,

- 수평정치의 압력은 커지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균형이 필요.

5. 기술과 사회: 기술관

- 기술이 개인에게 힘을 부여 한다 (empowerment). 인터넷, IT, NT, Bio 등

- 생명연장, 우주공간으로의 확장 등에 관한 얘기는 소박하고 지나친 기술 낙관론으로 보인다. (9장 NT, 10장 Bio, 11장 우주로의 확장 등)

G. Reynolds: 테네시 주립대학 법학 교수. 유명 블로거. 컴럽니스트.

InstaPundit.com 를 주도. ‘우주: 법과 정책 문제’ 등의 저술이 있음.

- 공.사의 구분

- . 공간: 공/사의 영역이 구분
- . 행위 영역: 예, 블로그 활동에서 사적/공적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짐

- 역 공간?

- 네트워크도 다양하다.

- . 특별한 네트워크의 예. 보통은 사람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보는데(?)
정보를 중심에 두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있다. 이 경우 사람은 달라져도
네트워크는 지속된다.
- . 경험의 네트워크 (학연, 지연 등 주어진 관계를 가진 네트워크. 수가 일정)
- . 관심의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많은 수가 될 수 있다.)

0 피에르 레비의 집단 지성 (최항섭 박사)

- 1994년에 출간. 집단지성을 다룬 최초의 학자인가?
- 집단지성의 의미가 독특하다. 대중들의 지성이란 의미가 아니다. 지식인 혹은 전문가들
로 이루어진 집단지성이란 의미. 흔히 오해되고 있다.
- L'intelligence의 의미가 독특하게 사용됨.